

보도시점 2024. 11. 25.(월) 08:00 배포 2024. 11. 25.(월) 08:00

주영한국문화원, 영국에서 판소리 워크숍을 열다

- 주영한국문화원, 채수정 소리단과 함께 판소리 워크숍과 공연 개최
- 현지 관객,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등 뜨거운 반응 보여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이하 문화원)은 11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2024년 한국 문화제 사업 ‘한국 연결 캠페인(Connect Korea Campaign)’의 일환으로 채수정 소리단과 함께 판소리 워크숍과 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판소리의 미학은 판의 아름다움이며, 소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들끓는 심정이기도 하며, 삭혀낸 심정이기도 합니다. 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는 판소리를 영국에서 배워보고, 공연을 보아서 깊은 한숨보다 더 깊고, 밝은 웃음보다 더 밝은 한국미학을 영국인들과 함께 경험하여 각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심정을 저마다의 소리로 표현하는 판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영국에서 판소리 워크숍의 의미를 전했다.

11월 18일(월)에는 옥스퍼드 대학 홀리웰 뮤직룸에서 공연이 진행됐다. 홀리웰 뮤직룸은 유럽의 첫 콘서트 용도로 설립된 건물로 헨델, 옥스퍼드 필하모니 소사이어티 등이 공연을 진행한 곳이다. 옥스퍼드에서 진행된 공연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실 ‘윈도우 온 코리아(Window On Korea)’ 문화행사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아시아·중동학부 조지은 교수가 개최하고 문화원이 지원했다. 고전문학과 음악에 관심을 가진 영국의 학자들과 학생들이 음악가들이 이 오래된 곡에 생명을 불어넣는 한국 전통 음악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경험하도록 행사를 준비했

다.

11월 19일(화)에는 문화원은 한국의 판소리를 배우고 나서, 판소리 공연을 듣는 한국학 워크숍으로 채수정 소리단의 판소리 워크숍과 공연을 진행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채수정 교수는 공연 전에 판소리에 대한 설명과 발성법, 그리고 발성법을 활용한 판소리 대목 불러보기를 진행했다. 판소리를 처음 접했다는 참가자는 ‘오늘 판소리를 처음 듣는 데 따라하기 쉽게 창법을 알려줘 재밌었다. 판소리를 더 깊게 배울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진행한 공연에서는 대금 독주 ‘청성곡’, 가야금 병창으로 연주한 심청가 중 방아타령, 전통 판소리 스타일로 부르는 수궁가 중 범 내려온다,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 춘향가 중 사랑가와 갈까부다, 흥보가 중 흥보 박 타는 대목이 공연됐다. 판소리 5마당의 눈대목 공연 후 이어진 민요 동백타령과 아리랑 연곡 공연에서는 워크숍에서 창법을 배운 관객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영국의 관객들은 “영국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과 판소리를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케이팝뿐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도 너무나 매력적이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문화원은 2023년 한영수교 140주년과 국민방문에 이어, 2024년 다양한 한국문화를 ‘한국 연결 캠페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에 전통 음악과 문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s.sun@kccuk.org.uk)
		담당자	실무관	정윤서 (ys.jung@kccuk.org.uk)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행사 개요

- 행사명 : 채수정 소리단 판소리 워크숍 & 공연
- 행사일시 : 2024년 11월 19일 (화)
- 행사장소 : 주영한국문화원
- 주최/협력 : 주영한국문화원

□ 행사 사진

행사 사진



채수정 교수 공연 모습



채수정 교수 워크숍 모습



채수정 소리단 공연 모습



채수정 소리단 공연 모습